

우주항공청 2025년도 예산안 9,649억원

- '24년 대비 27% 증액 편성, 민간 주도 우주항공경제 견인할
혁신적 R&D와 신산업 창출 지원에 투자 확대 -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2025년도 우주청 예산을 2024년도 7,598억원 대비 27% 증액된 총 9,64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금년도 5월 27일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밝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R&D와 신산업 창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주청 총 예산은 올해 7,598억원 대비 2,051억원(27%) 증액된 9,649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우주청의 2025년 예산은 ①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② 첨단위성 개발, ③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④ 첨단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⑤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되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우주청의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 반복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예산과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경제성 있는 발사를 위한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2,064억원→ 3,106억원)

* 한국형발사체고도화 : ('24년) 937억원 → ('25년) 1,478억원 (541억원 증)

* 차세대발사체개발 : ('24년) 1,101억원 → ('25년) 1,508억원 (407억원 증)

* 혁신형재사용발사체선행기술개발 : ('25년 신규) 50억

② **(첨단위성 개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 대응 등 국가임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의 위성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통신 및 기상 대응 목적의 첨단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도 신규로 투자한다.(1,760억원→2,123억원)

-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 ('24년) 255억원 → ('25년) 350억원 (95억원 증)
- *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 : ('25년 신규) 113억
- *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천리안위성5호)개발 : ('25년 신규) 50억

③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급성장 중인 미래 달 탐사 시장에 진입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달 착륙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비 감도 10배, 탐색속도 100배의 **거대전파망원경을 국제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한다**.(93억원 → 543억원)

-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 : ('24년) 40억원 → ('25년) 450억원 (410억원 증)
- * 민간달착륙선탄재체국제공동연구사업 : ('24년) 33억원 → ('25년) 73억원 (40억원 증)
- * 국제거대전파망원경건설사업 : ('25년 신규) 20억원

④ **(첨단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항공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민수 분야 미래항공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항공소재부품 국산화 및 도심지 첨단 무인항공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24년에 항공분야의 다수 사업들이 종료(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 등 7개 사업, 207억원)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항공분야 투자 예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612억원 → 405억원)

- *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개발 : ('24년) 32억원 → ('25년) 107억원 (75억원 증)

⑤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첨단 우주항공 부품의 국산화 개발 및 우주환경에서의 성능 신뢰성·안정성 시험을 지원하여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자생적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확충한다. (827억원 → 1,153억원)

- *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 : ('24년) 100억원 → ('25년) 230억원 (130억원 증)
-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 : ('24년) 14억원 → ('25년) 56억원 (42억원 증)
-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소자급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 ('25년 신규) 20억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우주항공 경제 창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산업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25년 우주항공청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2,051억원 증액된 9,649억원 규모로 커진 만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진혁 (055-856-4110)
		담당자	사무관	홍복식 (055-856-4113)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55-856-4310)
		담당자	사무관	최우석 (055-856-4312)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책임자	프로그램장	현성윤 (055-856-5110)
		담당자	사무관	박솔 (055-856-5113)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	책임자	프로그램장	김응현 (055-856-5210)
		담당자	선임연구원	오태형 (055-856-5220)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책임자	프로그램장	강현우 (055-856-5310)
		담당자	사무관	문영근 (055-856-5312)
담당 부서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	책임자	프로그램장	이광병 (055-856-5410)
		담당자	사무관	박성민 (055-856-5311)